

조선후기 通信使 使行錄에 반영된 日光山行^{*}

한태 문^{**}

|| 차례 ||

- I. 머리말
- II. 日光山行錄의 형성 배경
- III. 日光山行錄에 반영된 통신사 日光山行의 의미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日光山行錄의 형성배경, 日光山行錄에 반영된 日光山行의 의미를 통해 조선 후기 통신사 사행록에 반영된 일광산행의 성격을 밝힌 것이다.

먼저 일광산행록의 형성배경을 살폈다. 1636년·1643년·1655년에 행해진 3차례 통신사는 일본의 強請에 의한 ‘산수유람’과 양국 선린의 상징적인 행사인 ‘致祭’를 수행하였다. 일광산행록은 일광산행의 불가피성을 토로하고 자신의 文名 과시 및 귀중한 견문을 전달하려는 보고의식에서 산출되었다.

다음으로 일광산행록에 반영된 일광산행의 의미를 살폈다. 일광산행은 최종목적지인 일광산을 향한 노정으로 산수유람의 노정이기도 했다. 江戶-日光山 노정에서는 각 지역의 경관에 대한 감회를, 일광산 유람에서는 山菅橋, 瀧尾폭포 등 자연경관과 함께 東照宮·權現堂의 건축물의 화려함에 대한 감회를 드러내었다. 또 일광산행은 조선의 祭儀를 權現堂과 大猷院에서 재현한 致祭의 노정이었다. 그리고 일광산행은 일본의 文士·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NRF-2012S1A5A2A01019865)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接伴僧과 贈詩와 唱和를 통한 문학 교류, 致祭에 사용된 油密果를 통한 음식교류 외에 일본 國醫의 대동과 致祭행렬 중 악공들의 연주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의학·음악교류 등 문화교류의 노정이기도 했다.

주제어 : 통신사, 일광산행, 일광산행록, 치제, 문화교류

I. 머리말

통신사는 일본과의 교린을 실현하기 위해 1428년부터 1811년까지 무려 400여 년간, 조선의 왕이 일본의 실질적인 최고 통치자인 幕府의 장군에게 보낸 외교사절이다. 통신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곧 『大系 朝鮮通信使』와 『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로 대표되는 일본의 성과와 함께 국내에서도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가 발간되고 연구사까지 나왔다.¹⁾ 특히 국내의 경우 최근에는 일본 소재 사찰의 통신사 관련 시문이나 국내외 필담창화집을 모아 번역한 자료집, 국내의 사행경로를 되밟은 답사기까지 발간되어²⁾ 통신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통신사에 대한 방대한 연구 성과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1636년 ·

1) 辛基秀·仲尾宏, 『大系 朝鮮通信使』, 明石書店, 1993; 三宅英利, 『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 文獻出版社, 1986; 조규익·정영문,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학고방, 2008; 손승철, 「조선시대 통신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12집, 한일관계사학회, 2002; 한태문,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국제어문』27, 국제어문학회, 2003.

2) 『淸見寺 소장 조선통신사 유물도록』,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2006; 『相國寺 慈照院 소장 조선통신사 유물도록』,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2008; 『조선후기 통신사 필담창화집 번역총서』, 보고사, 2013; 『조선통신사 옛 길을 따라서』1~3, 도서출판 한울, 2007~2009; 한태문, 『조선통신사의 길에서 오늘을 묻다』, 도서출판 경진, 2012.

1643년·1655년 통신사에 대한 연구는 사행록과 필담창화집이 많이 산출된 18세기 통신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략한 편에 속한다. 이는 첫째, 이 3차례의 사행이 문화사절로서의 성격이 강화된 1682년 통신사 이전 사행이라는 점, 둘째 노정의 종착지가 江戸가 아닌 德川家康의 願堂이 있던 日光山까지로, 일본의 强請에 의한 일광산 遊覽과 關白을 지낸 이들에 대한 致祭가 행해졌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 하면 이 3차례 통신사의 일광산 행차(이하 ‘일광산행’으로 약칭)는 對馬島로부터 江戸까지로 국한되었던 일본 건문의 범위를 關東 이북까지 확장한 것이다. 따라서 통신사 문학의 공간 확대는 물론 일본 문사와의 교류확대로 이어진 좋은 기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이를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 통신사의 일광산행에 대한 연구로 선편을 잡은 松田甲, 大瀧晴子조차 유람의 경위, 致祭의 절차와 과정, 편역과 종 등 통신사의 증정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³⁾ 이는 국내 연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역사학적으로 접근하되 ‘儀禮’에 초점을 맞춘 것과⁴⁾ 문학적으로 접근하되 ‘對日認識’이나 전반적인 概括에 초점을 맞춘⁵⁾ 두 방향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3) 松田甲, 『李朝仁祖より寄贈せる日光東照宮の扁額と鐘』, 『續日鮮史話』, 조선총독부, 1931; 大瀧晴子, 『日光と朝鮮通信使』, 『朝鮮史叢』 1호, 靑丘文庫, 1979; 『朝鮮通信使による日光山致祭』, 『朝鮮史叢』 2호, 靑丘文庫, 1979; 『明曆の朝鮮通信使』, 『朝鮮史叢』 3호, 靑丘文庫, 1980. 비슷한 연구로 金巴望, 『日光の道と正使からの贈り物』, 『朝鮮通信使』, 明石書店, 1995, pp.321-340도 있다.

4) 최종일, 『조선통신사의 일광산 치제 연구』, 강원대 석사학위, 1998; 한기승, 『일본통신사 연구-병례의 성격분석을 중심으로』, 동의대 석사학위, 2004; 송지원, 『조선통신사의 의례』, 『조선통신사연구』 2집, 조선통신사학회, 2006.

5) 정장식, 『계미(1643년) 통신사행과 일본인식』, 『일본문화학보』 10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1; 정영문, 『신유의 <해사록>에 나타난 일본체험과 인식 고찰』, 『온지논총』 21집, 온지학회, 2009.

이처럼 기존의 연구성과는 한결같이 이들 3차례 통신사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광산행을 기술한 사행록’(이하 ‘일광산행록’으로 약칭)의 형성 배경은 물론, 일광산행의 구체적인 노정과 그 의미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한 한계가 있다.⁶⁾ 따라서 본 연구는 『海行摠載』에 수록된 金世濂의 『海槎錄』(1636)을 비롯한 3차례 통신사의 일광산행록을 중심으로 일광산행록의 형성배경과 일광산행록에 반영된 일광산행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II. 日光山行錄의 형성 배경

1. 일본의 强請에 의한 遊覽과 致祭를 통한 善隣友好

壬亂 이후 재개된 초기 3차례의 통신사는 ‘回答兼刷還使’라는 공식명칭에서 알 수 있듯 임란으로 단절된 朝日 양국의 교린체제 복구에 초점을 두었다. 곧 이 시기 조선은 통신사 파견을 통해 德川家康의 화친 요구에 대한 회답이라는 국교재개의 명분과 함께 被虜人들의 쇄환이라는 실리적 이득을 동시에 얻었다. 일본도 통신사의 방문을 통일정권으로서 將軍 권력의 국제적 위용은 물론, 외교적으로 德川幕府의 平和通商정책을 통한 동아시아 사회와의 연계를 과시하는 계기로 삼았다.⁷⁾

이처럼 통신사를 통한 외교관계가 제자리를 잡아갈 무렵, 뜻하지 않게

6) 최근 1643년 통신사 때 일본 東照宮에 증정한 銅鐘의 銘文, 日光山詩軸, 東照宮祭文 등을 외교문서를 통해 經國文章이 실현된 대표적인 예로 살핀 심경호의 연구(『일본 일광산(동조궁) 동종과 조선의 문장』, 『어문논집』65, 민족어문학회, 2012, pp.316-347)는 주목할 만하다.

7) 三宅英利 저·손승철 역,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이론과실천, 1991, p.130.

1634년 3월 이른바 ‘柳川一件’이 발생한다. 이는 對馬藩의 家臣인 柳川調興이 그동안 11차례나 오간 일본의 국서가 사실은 對馬藩에 의해 개작되었음을 폭로하여 對馬島主 宗義成과 柳川調興이 幕府에 맞고소한 사건을 일컫는다. 3대 將軍 德川家光이 직접 참여한 이 재판은 柳川調興을 津輕에 유배 보내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幕府가 對馬島主의 손을 들어준 것은 幕藩체제 확립에 있어 君臣간 主從의 윤리를 명시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⁸⁾ 이후 조선과의 무역은 이전처럼 對馬藩에 맡기되 京都五山の 승려가 對馬島 以酤庵에 머물면서 朝鮮과의 외교문서를 전달·작성하는, 이른바 ‘以酤庵輪番制’가 실시되어 통신사를 통한 양국 외교도 일대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최초로 일광산행이 이루어진 1636년 통신사는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태평을 축하하는 사절이었다. 하지만 주목적은 ‘柳川一件’으로 위상이 약화된 對馬島主를 옹호하고⁹⁾ 변화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외교정책 및 국정의 탐색을 위해 파견되었다. 그런데 국서 전달을 위해 마지막 숙박지인 江戸 本誓寺에 머물던 통신사는 일본측으로부터 사전 협의에도 없었던 德川家康의 願堂인 日光東照宮 유람을 요청받게 된다.

원래 통신사 파견이 결정되면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여 만든 <講定節目>에 따라 사행을 진행시키는 것이 통례였다. 국서전달도

8) 三宅英利 저·김세민의 역, 『조선통신사와 일본』, 지성의샘, 1996, p.75. 任統은 『丙子日本日記』(1636/12/14)에서 對馬島主의 승소는 對馬島主의 姪女가 家光의 총애를 받아 임신한 데 힘입은 것(關白無子 寵義成侄女 今方懷孕 深以爲幸 義成有力於關白 蓋以此云)으로 파악하고 있다.

9) 이는 정사 임광의 “조정에서 義成을 위해 通信의 일을 의논하였는데, 혹시 생경한 일이 일어날까 의심하였다.”(『병자일본일기』, 1636/10/09)는 기록과 역관 홍희남의 “조정에서 이미 義成 때문에 이번 사신을 보내게 된 것”(김세렴, 『해사록』, 1636/12/11)이라는 말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정절목에도 없던 사항을 요구받은¹⁰⁾ 통신사의 반응은 당연히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통신사의 일광산 유람은 ‘柳川一件’의 종결에도 불구하고 親對馬島主派와 親柳川調興派, 新정권과 舊정권의 치열한 정치적 암투가 배경에 깔려 있었다. 곧 통신사의 일광산 유람 거부가 알려지자 林道春, 土井大炊頭利勝을 비롯한 親柳川調興派는 이를 對馬島主의 무능력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인 것이다.¹¹⁾ 이는 역관 홍희남이 “日光山 유람을 청할 때에 大炊 등은 오직 흑시라도 (통신사가) 허락할까 두려워하고, 大君은 오직 허락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¹²⁾는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三使는 곤경에 빠진 對馬島主를 구하기 위해 정몽주와 앞선 통신사의 유람을 근거로 일광산행을 허락하되 국서전달 후 실행하며, 방문 목적을 참배가 아닌 ‘천하명승지 유람’으로 한정하였다. 드디어 12월 14일 傳命式을 치른 통신사는 德川家光이 그 재주를 보기 원했던 學官, 寫字官, 軍官, 典樂, 馬上才 등을 江戸에 남겨두고 三使를 비롯한 217명이 12월 18일 江戸를 떠나 22일 日光에 도착함으로써 江戸 이북의 땅을 밟은 최초의 외국인¹³⁾이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일광산행이 이루어진 1636년 통신사와 달리, 1643년 통신사의 일광산행은 선린의 차원에서 양국의 합의하에 <講定節目>에 포

10) 1636년 통신사의 강정절목은 『增正交隣志』 권5, 『志』, <信行各年例>를 참조. 임광의 『병자일본일기』(1636/12/08)에는 통신사의 일광산행에 대한 소문을 이미 12월 2일 숙박지인 三島에서 들은 것으로 나타난다.

11) 仲尾宏은 외교적 무능력을 빌미로 對馬島主의 처벌을 요구하게 되면 德川家光 정권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았다. 仲尾宏, 『朝鮮通信使と德川幕府』, 明石書店, 1997, pp.110-115.

12) 김세렴, 『해사록』, 1636/12/22. 今此日光之請 大炊等惟恐其或許 大君惟恐其不許.

13) 辛基秀·仲尾宏, 『圖說 朝鮮通信使の旅』, 明石書店, 2000, p.92. 총 18회 訪日한 琉球 통신사도 총 3차례(1644·1649·1653년) 日光山을 방문했다.

함되고 德川家康에 대한 ‘致祭’로 발전하였다.¹⁴⁾

일본은 東照宮의 石造寶塔이 완공될 즈음인 1641년, 德川家光이 40세의 나이로 아들을 낳자 조선에 이를 축하하는 통신사의 파견과 東照宮에 헌상할 扁額, 詩文, 鐘, 鐘銘, 佛具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선에서는 전례가 없고 흉년으로 경상도의 재력이 다했으며, 對馬島主가 생색을 내기 위해 꾸민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많았다.¹⁵⁾ 하지만 종을 만들고 佛具를 보내어 家康의 명복을 빌어줌과 동시에 자비를 담은 敎書를 보내어 關白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었다.¹⁶⁾

조선 조정은 심사숙고 끝에 일본과 교린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통신사 파견을 결정했다. 정사 尹順之, 부사 趙綱, 종사관 申濡 등을 삼사로 한 총 462명의 1643년 통신사는 2월 20일 서울을 출발, 3월 10일 부산에 도착하여 총점검을 한 뒤 4월 27일 일본으로 향했다. 이후 7월 8일 江戸에 도착한 사행은 23일 江戸를 출발, 27일 일광산에 도착하였다.

1655년 통신사의 일광산행은 德川家康에 대한 분향과 3대 장군 德川家光에 대한 致祭로까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1651년 4월 20일 德川家光이 죽고 8월 18일 4대 장군 德川家綱이 뒤를 잇자, 일본은 1653년 9월 對馬島를 통해 장군습직축하의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후 일광산 致祭 제문

14) <講定節目>에 대해서는 『增正交隣志』 권5, 「志」, <信行各年例>를 참조. 일본은 통신사의 일광산 제사를 ‘參詣’라 하고, 조선은 ‘致祭’(『增正交隣志』, 卷5, 「志」, <日光山致祭儀>, 命詞臣製文致祭)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기록을 따르기로 한다.

15) 경상감사 具鳳瑞(『通信使謄錄』, 壬午年(1642) 1/11, 2/13, 2/21), 동래부사 丁好恕(『인조실록』권43, 20년(1642), 1/8. 이하 왕조실록의 인용은 『인조』43, 20(1642)/01/08'로 표기함)의 狀啓가 대표적이다.

16) 『인조』43, 20(1642)/06/12. 完城府院君崔鳴吉筭曰…持供佛之具 爲家康薦福 仍以慈悲之教 諷諭關白 此乃因勢而利導之術也.

과 燈籠 1쌍, 日光山銘의 제작 등 거듭된 對馬藩의 요청을 받아들인 조선 조정은 통신사 파견을 결정하고 1654년 10월 29일 三使를 임명한다.¹⁷⁾

이때 1643년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20개 조의 <講定節目>이 마련되었는데, 그 가운데 일광산과 관련된 항목으로 大權現堂과 大猷院廟의 치제 순서, 등롱, 제문과 御筆의 내용, 大權現堂에 헌상하는 말의 수, 讀祝官의 자격 등이 포함되어 있다.¹⁸⁾ 정사 趙珩, 부사 劉敞, 종사관 南龍翼을 삼사로 한 총 485명의 1655년 통신사는 4월 20일 임금과 하직하고, 5월 21일 부산에 도착하여 점검을 마친 뒤, 6월 9일 일본으로 향했다. 이후 10월 2일 江戸에 도착한 사행은 14일 322명이 江戸를 출발, 18일 일광산에 도착하여 致祭를 수행하였다.

2. 日光山行의 불가피성 토로와 견문에 대한 보고의식

전통적으로 對日 사행록은 사행원이 일본에서 체험한 자신의 견문과 느낌을 전달하고 文名을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산출되었다.¹⁹⁾ 日光山行錄 역시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1636년 日光山行錄은 통신사가 예정에 없던 일광산행을 하게 된 과정을 유난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①12/08: 江戸의 本誓寺에서 머물던 三使는 對馬島主가 日光山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속을 떠보는 것 같아 이상도 하고 밋기도 하다.”는 반응을

17) 남용익, 『부상록』, 『扶桑日錄序』. 該曹議于廟堂 擬入三使臣望 十月二十九日天點始下 又以副使之改易 翌年乙未乃定. 남용익은 1655년 三使가 확정되었다고 했지만 『효종실록』에는 그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

18) 三宅英利 저·손승철 역, 앞의 책, pp.238-240 참조.

19) 한태문, 『통신사 사행문학의 형성배경 연구』, 『우암어문논집』5집,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pp.65-83.

보인다. ②12/09; 사신의 품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는 林道春과 통신사 역관을 보고 義成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코피 쏟기를 서너 번이나 해서 아주 절박한 모습을 했다.”는 역관 홍희남의 보고 내용을 접한다. ③12/10; 對馬島主를 통해 정식으로 關白의 요청을 받지만 사신의 책무와 기한을 이유로 2번이나 거절한다. ④12/11; 對馬島主가 “주인집에 불이 났는데, 손님이 구하려 하지 않는다면 어찌 인정이라 하겠습니까?”라며 협조를 간청하자, 三使는 곤경에 빠진 島主를 고려해 국서전달을 전제로 日光山 유람을 허락한다. -임광, 『병자일본일기』(1636)

결국 1636년 통신사의 일광산행록은 당시 예정에 없던 일광산행이 곤경에 빠진 對馬島主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통신사의 일광산행이 자신의 영광은 물론 對馬島主에게도 큰 다행이라는 關白의 말과 이로 인해 傳命禮와 回答書에 문제가 없게 되었다는 外交僧 棠陰玄召의 말²⁰⁾을 자세히 덧붙이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일광산에 도착한 1636년 통신사는焚香을 요구받을까봐 德川家康의 목상이 안치되어 있는 大權現堂의 中門을 들어서지 않고 때마침 내린 눈보라를 핑계로 황급히 하산해버린다. 이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버린 것이다.²¹⁾

한편, 1643·1655년 통신사의 일광산행록은 자신의 견문과 느낌을 전달하고 文名을 과시하려는 목적을 강하게 드러낸다. 日光山行錄의 서술양상을 『해행총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雜文’은 ‘聞見

20) 임광, 『병자일본일기』, 1636/12/12. 大君辟左右語我曰 今日之事 非但於我生光 爲汝大幸云<…>召僧來見洪喜男曰<…>前頭二款難事 亦不足慮矣.

21) 김세렴, 『해사록』, 1636/12/22. 義成請入中門 周覽其內 余等辭不入 少憩石壇上 風雪始作 遂還入日光寺 促裝下山. 실록에는 1636년의 일광산행에 대한 문책 대신 復命(『인조』34, 15(1637)/03/09)과 三使·역관 등에 대한 논공행상의 기록(『인조』34, 15(1637)/윤4/28)만 보인다.

錄」, 「狀啓」 등을 포함)

年度	日記	詩	雜文	日記+詩	日記+雜文	詩+雜文
1636	丙子日本日記 (任統)	槎上錄 (金世濂)			海槎錄 (金世濂)	
	東槎錄(황호)					
1643	癸未東槎日記 (미상)	海槎錄 (申濡)				東槎錄 (趙綱)
1655			聞見別錄 (南龍翼)	扶桑錄 (南龍翼)		

통신사 사행록은 일기체 기행문·『견문록』류로 대표되는 산문양식과 시라는 운문양식을 모두 아우르는 혼합적 서술양식의 채택으로 사행체험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도표에서 보듯 日光山行錄도 대체로 종합적 구성을 취하지만, 1643년 통신사 이후의 日光山行錄은 詩文의 확대가 두드러진다.

1636년 통신사의 경우 김세렴이 日光山行을 통해 남긴 시는 7언 율시 4제 8수와 7언 절구 1수 등 총 9수²²⁾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일광산에 이르는 노정에서 지은 시는 없고 모두 일광산에서 지은 것이다. 하지만 1643년 통신사부터는 도중에 지은 시가 나타나고, 일광산의 10개 명소를 중심으로 한 7언 율시 「日光山題詠」 10수도 등장한다. 양적인 확대는 물론, 노정에 따른 견문과 감상을 담은 使行詩가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1655년 통신사의 일광산행록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종사관 남용익은 『부상록』에서 10월 11일 일광산행의 날짜 지정부터 18일 일광산 도착 및 致祭, 22일 江戶 복귀까지를 일기 형식으로 정리하면서 사이사이에 시

22) 김세렴, 『槎上錄』. 7언 율시는 「日光寺」(4수), 「靈杉」(1수), 「次璘西堂」(2제 3수) 등이고, 7언 절구는 17수로 된 「江戶雜詠」 가운데 9번째 시이다.

를 삽입하여 事實과 感想의 적절한 조화를 보여준다.²³⁾ 특히 견문을 집약한 『문견별록』의 「道里」에서는 越介谷・糟壁・新栗橋・小山・石橋・宇都宮奥・徳次良・今市・日光山 등 노정에 포함된 지역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적고 있다. 시를 통한 文名の 과시와 함께 자신의 귀중한 체험을 자세하게 전달하려는 보고의식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 日光山行錄은 1636년・1643년・1655년에 행해진 3차례 통신사가 일본의 强請에 의한 ‘산수유람’과 양국 선린의 상징적인 행사인 ‘致祭’를 수행하면서, 日光山行의 불가피성을 토로하고 자신의 文名 과시 및 귀중한 견문을 전달하려는 보고의식에서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Ⅲ. 日光山行錄에 반영된 통신사 日光山行의 의미

1. 일본 노정의 최종 목적지

사행노정은 통신사 사행록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로, 대체로 일기체 기행문에 경유지의 지명, 날씨, 里數 등이 표시된다. 하지만 ‘문견별록’류에 따로 항목을 만들어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²⁴⁾

조선후기 통신사의 노정은 1617년・1811년 통신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서울을 출발, 江戸 도착 후 국서를 전달하고 회답서계를 받은 뒤 귀로에 올라 임금께 復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²⁵⁾ 하지만 1636・1643・1655년

23) 「宇都宮」・「徳次良」・「今市月夜更次前韻」・「曉過山下村」・「日光謠」 등의 시와 「次林道春寄韻」・「新栗橋次秋潭」 등의 차운시가 대표적이다.

24) 남용익은 『문견별록』(1655)의 「道里」조에서, 조엄은 『해사일기』(1763)에서 일기체 기행문 외에 따로 「酬唱錄」・「各處書契」 등과 함께 「使行名單及路程記」를 다루고 있다.

통신사는 남용익이 “부산으로부터 日光山에 이르기까지 바다와 육지를 통
계하여 4천 9백 60리”²⁶⁾라고 밝힌 것처럼, 일본 내 노정의 최종 목적지가
江戸가 아닌 日光山이었다. 따라서 이들 사행록은 江戸 이북의 노정을 살
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일광산행록에 반영된 통신사의 일광산행 왕
복노정은 다음과 같다. (점심○, 숙박●)

사행 연도	노정																			
	越 箇 谷	槽 壁	新 栗 橋	小 山	石 橋	宇 都 宮 奥	德 次 良	今 市	日 光	今 市	德 次 良	宇 都 宮 奥	石 橋	小 山	新 栗 橋	槽 壁	越 箇 谷	江 戶		
1636	○	●	○	●	○	●	○	●	○	●		○		●		○	●	○	●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643	○	●	○	●	○	●	○	●	○	●		○		●	○	●	○	●	○	●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1655	○	●	○	●	○	●	○	●	○	●	○	●	○	●	○	●	○	●	○	●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도표에서 보듯 1636·1643년 통신사의 일광산행은 江戸 출발-越箇(介)
谷(점심)-槽壁(숙박)/新栗橋(점심)-小山(숙박)/石橋(점심)-宇都宮奥(숙
박)/德次良(점심)-今市(숙박)/日光-今市(숙박)/宇都宮(점심)-小山(숙
박)/新栗橋(점심)-槽壁(숙박)/越介谷(점심)-江戸(숙박) 등 총 8일간의 노
정으로 이루어져 있다.²⁷⁾ 이에 비해 1655년의 일광산행은 경유지는 변함

25) 『増正交隣志』권5, 『志』, <水陸路程>. 1617년은 京都 伏見城에서, 1811년은 이른바
‘易地聘禮’로 對馬島에서 傳命式이 이루어졌다.

26) 남용익, 『聞見別錄』, 『道里』. 右自釜山至日光山 通計水陸凡四千九百六十里.

27) 일광산행록에는 자세한 지명이 등장하지 않지만 江戸를 떠난 통신사는 千住·草
加·越ヶ谷(越箇谷)·槽壁·幸手·栗橋(新栗橋)·中田·古河·野木·間間田·
小山·新田·小金井·石橋·雀宮·宇都宮·下德次郎·中德次郎·上德次郎·大
澤·今市·鉢石 등을 경유한 뒤 日光山에 도착한다. 그런데 이 노정은 德川家光이
1640년 德川家康 25週年을 맞아 일광산으로 향하던 노정과 약간 차이가 있다. 德川
家光은 江戸城의 大手門에서 출발, 岩淵·川口·鳩谷·大門·岩槻를 지나 幸手에

이 없되, 앞과 달리 德次良-小山의 하루 노정을 이틀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측은 통신사의 일광산행이 심혈을 기울였던 행사였던 만큼 축제분 위기를 조성했다. 1655년 통신사의 경우 江戸 시가지에 등불이 내걸리고 불조심 강조, 구경꾼들의 무질서 금지, 민망한 모습을 보이지 말 것 등의 지침이 내려졌으며, 출발 당일은 임시공휴일이 되었다.²⁸⁾ 뿐만 아니라 일광산행 노정에 포함된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대단했다. 통신사행렬이 그려진 埼玉縣 医王寺와 栃木縣 大川島神社에 소장된 ‘繪馬’, 栃木縣立博物館에 소장된 ‘병풍그림’, 茨城縣土浦市立博物館에 소장된 두루마리 그림 등이 그 예이다.²⁹⁾ 한편 일본측은 통신사의 일광산행에 대한 접대준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큰 길은 곧 대군께서 왕래하는 길입니다. 대군께서 이번 행차를 위해 이미 배다리를 큰 길의 지나는 곳마다 만들고 또 만 냥의 銀子を 보내어 각 역 마을에 식당과 여관을 설치했습니다.” - 김세렴, 『해사록』(1636), 12/17.

사신이 日光山으로 가는 길이 지름길로 하루, 큰 길로 사흘이 걸리는데 굳이 큰 길로 가는 이유를 묻자 對馬島主가 대답한 내용이다. 통신사를 위해 關白만이 사용하는 큰 길을 이용하고 배다리는 물론 만 냥의 銀子を 들여 역마을에 식당과 여관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틀 후 小山에서 머물 때 임진왜란때 잡혀 와 關白의 요리사가 된 경주 사람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곧 12월 초 백성을 징발하여 길을 닦았고 각 역마을의 이바

서 江戸 5街道의 하나로 ‘日光街道’와 합치는 脇街道인 ‘御成街道’를 이용하여 日光山으로 향했다. 佐藤權司, 『朝鮮通信使・琉球使節の日光参り』, 隨想舎, 2007, p.25.

28) 大瀧晴子, 『明暦の朝鮮通信使』, 『朝鮮史叢』3호, 靑丘文庫, 1980, p.167.

29) 佐藤權司, 앞의 책, p.185, 표11을 참조.

지 비용이 수만 냥을 넘으며 館舍 수백 칸을 지으면서 만 냥을 썼다는 것이다.³⁰⁾ 이밖에 1636년의 경우 國醫 玄塚에게 통신사를 수행하게 할 정도였으니³¹⁾ 일본측이 얼마나 통신사의 일광산행에 신경을 쓰고 접대준비에 만전을 기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2. 산수유람의 노정

통신사의 일광산행은 前後 사행원들이 경험하지 못한 東北지역의 산수를 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통신사의 산수유람은 크게 江戶-日光山 왕복 노정과 日光山에서의 유람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江戶-日光山 왕복노정에서의 유람을 살펴보자.

“仙山 어느 곳에 도량을 열었는고 / 天香을 손에 받들고 玉臺를 찾아가니 / 사신은 宛馬를 얻고자 함이 아니오 / 祠官도 蜀鷄를 위해 온 것도 아니라네 / 扶桑의 햇빛은三更에 나오고 / 발해의 물결소리 만 리 밖에 돌아드니 / 구리기둥에 이름 새김은 내 이미 사양했거니 / 오히려 장한 놀음에 사마천의 재주나 흉내 내볼까 仙山何處道場開 手捧天香訪玉臺 使者非關宛馬得 祠官不爲蜀鷄來 扶桑日色三更出 渤海潮聲萬里廻 銅柱勒名吾已謝 壯遊還擬子長才” - 신유, 『해사록』(1643), 『赴日光道中有作七月二十三日』

종사관 신유가 江戶를 떠난 후 약 60리를 지나 점심을 먹기 위해 첫 번째로 머문 越介谷에서의 감흥을 읊은 것이다. 자신의 일광산행이 漢武帝 처럼 이름난 大宛의 말을 얻기 위함도, 馬援처럼 交趾를 평정한 뒤 구리기

30) 김세렴, 『해사록』(1636), 12/19. 夕有一人自言慶州人 壬辰被擄 今爲關白廚子 以事來此站數月矣 爲朝鮮使臣遊覽之行 發民治道者七日 始聞使臣入江戶之奇<…>各站供億所費 過數萬兩 今始新造館宇數百餘間 亦費萬兩云.

31) 김세렴, 『해사록』(1636), 12/17. 關白爲送國醫玄塚者陪行云.

등을 세워 後漢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도 아님을 강조한다. 외교사행 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익에 연연하기보다 이국의 산수를 마음껏 즐기겠다고 하여 日光山行이 지나는 善隣의 의미를 잘 부각시키고 있다.

“강과 바다가 섞여 흘러 절로 방아를 찧는 듯하니 / 이곳은 東關의 깃과 띠 바로 요충지라네 / 松平伊豆守의 五馬는 구름처럼 나와 맞이하고 / 新栗橋를 건너는 雙橋는 비오지 않아도 흡사 용 모양 / 가을 구름은 넓은 들을 덮었고 / 날아오는 이내 외로운 뒤편에 떨어지니 / 시 재주는 가는 곳마다 아직도 건장하여 / 이런 경치를 만나면 날마다 일공을 바친다네 江海交流勢自春 東關襟帶是要衝 松平五馬浮雲騎 栗渡雙橋未雨龍 合沓秋陰連廣野 飛來嵐氣落孤峯 詩才到處猶能健 爲此風煙日日供” - 신유, 『해사록』(1643), 「新栗橋」

關東의 북쪽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利根川, 이를 건너 中田宿에 이르는 船渡場이자 關所인 新栗橋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유려하게 묘사된다. 아름다운 경치가 있고 시 재주도 있으니 일공을 바치듯 시를 읊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득한 仙宮을 宇都라 이름지었으니 / 풍경이 완연히 작은 봉래산 / 나루의 큰 마을은 긴 길에 이어지고 / 陸奥州의 웅장한 고을은 이 명승지에 접하였네 / 한나라 사신이 배를 탄들 끝내 어찌 이를 것이며 / 진시황도 바다를 건너려면 응당 발이 젖으리 / 이제야 두보의 남은 한이 없으리라 / 부상의 땅 한 모퉁이를 모두 다 밟았으니 縹緲仙宮揭宇都 宛然風物小蓬壺 津○大里連長路 陸奥雄州接勝區 漢使乘槎終豈到 秦皇度海足應濡 至今杜老無遺恨 踏盡扶桑地一隅” - 남용익, 『부상록』(1655), 10/17, 「宇都宮」

小山에서 하루를 머문 남용익이 石橋를 거쳐 宇都宮에 여장을 풀 뒤 감회를 읊은 것이다. 宇都宮은 下野 최대의 도시로 日光道中이 奥州道中

으로 갈라지는 요충지이며 19회나 행해진 關白의 日光山行 때도 반드시 머물렀던 숙박지였다.³²⁾ 宇都宮에 도착해보니 봉래산처럼 아름다운 경치와 나무를 중심으로 형성된 큰 마을이 짝을 이루어 西域의 길을 연 張鷟이나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려 다리를 놓았다는 진시황도 감히 다다를 수 없는 선경이 아닌가. 게다가 두보조차 바다 건너 扶桑國을 가지 못함을 한탄했는데 이제 자신이 그 한을 다 풀어주었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다.

이후 宇都宮을 떠난 사행은 德次良에서 점심을 먹고, 일광산행의 마지막 숙박지인 今市에 도착한다. 남용익은 단풍과 국화가 울타리가 되고 대숲이 이웃이 되며 산수마저 사신을 기쁘게 맞이하는 까닭에 “여행의 흥이 일어 시주머니가 다시 불룩해진다(東行萬里堪乘興 到此奚囊更不貧)”(『부상록』, 10/17, 『走次秋潭韻』)고 德次良의 경관을 찬탄한다. 또 日光道中 최후의 宿驛으로 통신사를 위해 무려 1만 냥의 돈을 들여 만든 今市客館³³⁾에서는 나무들이 끊임없이 서로 이어진 모습을 보고 “산은 方丈山이 서 있는가 의심되고 / 물은 무릉으로부터 옮겨 온 듯하다(山疑方丈立 水自武陵移)”(『부상록』, 10/17, 『走次秋潭韻』)고 찬탄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일광산에서의 산수유람을 살펴보기로 하자. 일광산은 빼어난 경치와 화려한 건축물로 유명했다. 하이쿠(俳句) 시인 松尾芭蕉가 東北지방을 여행하면서 지은 『奥の細道』의 작품배경이 되었고, 소학교 교과서에는 「日光山」이란 노래가 실렸을 정도였다.³⁴⁾ 따라서 좋은 산수를 보면 시

32) 佐藤權司, 앞의 책, pp.92-95.

33) 필자는 2008년 7월 28일 佐藤權司의 안내로 통신사의 객관인 唐人小屋의 터였던 三並木公園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조선통신사 일본방문 400주년을 기념하여 日光市와 한국민단도지키현지방본부가 2007년 12월에 세운 <朝鮮通信使 今市客館跡> 기념비가 있었다.

34) ①『奥の細道』는 松尾芭蕉가 1689년 3월 27일 江戸 深川을 떠나 9월 6일 大垣까지 약 150일간 2,400km의 여행기록으로, 그는 3월 30일 日光에 들어와 4월 1일 東照宮을

문을 쏟아내던 조선의 문사들이 시 주머니를 그냥 비워둘 리가 없었다.

“막다른 길 샘물이 골짜기에서 뿜어 나오니 / 하늘을 나는 신선이라도 여기
선 애처로운 얼굴이 될 듯 / 누가 은하수를 걱정하여 鳥鵲에게 시켰을까 /
신령스런 뱀이 왕골로 변했다니 정말 기이한 일 / 도삭산의 반도도 통할 길이
있었고 / 형산의 꼭대기도 기어오른 이가 있었나니 / 아마도 우 임금의 도깨비
들을 내몰고 / 천하 명승지를 귀신들이 차지할까 아꼈나 보다 路絕噴泉東峽間
飛仙於此亦凋顏 誰令鳥鵲愁銀漢 可異靈蛇化草菅 陶索蟠桃通利涉 衡山絕
頂有躋攀 由來禹鼎驅魍魎 天下名區鬼得慳” -조경, 『동사록』(1643), 『日光
山題詠·山菅橋』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 사실상 일광산에 대한 첫 대면이라 할 수 있는
山菅橋에 대한 감상이다. 오늘날 ‘神橋’라 일컫는 山菅橋는 ‘日光山題詠’
류³⁵⁾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명소로, 이 시는 일광산 開山祖인 勝道上人
과 관련된 일화³⁶⁾가 바탕에 깔려 있다. 그는 세차게 흐르는 大谷川을 건널
수 없자 神佛에게 기원을 했고, 그때 水神인 深沙大王이 나타나 손에 들
고 있던 붉고 푸른 뱀을 던져 다리를 만든 후 그 위에 왕골풀이 나게 하여

참배하였다. ②일본 문부성, 『新訂 尋常小學唱歌』 第五學年用, 大日本圖書株式會社, 1932, pp.26-27. 전체 27곡 중 10번째에 수록되어 있는 4/4박자 3절의 노래다.
35) 각각 10수씩을 읊은 조경의 『日光山題詠』, 신유의 『日光山詩十首』 등이 대표적인 예로, 공통적인 명소는 ‘山菅橋·三本杉·嶺上湖·瀧尾瀑布·三級瀑布·玄珠碑文·二荒山’ 등이다. 김세렴(1636), 남용익(1655)의 시문에는 ‘權現廟·日光寺’ 등이 공통으로 나타난다.

36) 『神道大系·神社編 日光二荒山』, (財)神道大系編纂會, 1985, pp.194-195. 勝道上人은 766년 일광산 초창의 절인 四本龍寺(현재의 輪王寺)는 물론 뒤에 中禪寺도 창건한 인물이다. 조경과 신유는 제자 空海가 勝道の 男體山 등정을 기록한 『勝道山水榮玄珠碑文』을 읽고 각각 『玄珠碑文』·『玄珠碑』를, 조경은 따로 『勝道觀世音』이란 시를 남겼다. 오늘날 神橋를 건너 주차장 곁에 그의 동상이 서 있고, 中禪寺에서는 매년 8월 4일 그의 유적지를 배로 돌며 참배하는 ‘船禪頂’ 행사가 열린다.

무사히 건넜다는 것이다. “도삭산의 반도”와 “형산의 등반”을 어렵긴 해도 이를 수 있는 예로 들고, 도깨비와 귀신들이 모습을 숨길 수 없었던 禹임금의 九鼎을 대비시켜 山菅橋의 신성성을 부각시킨다. 이국의 지역 전설이 통신사의 시문 속에 오롯이 자리를 잡았다.

“구리로 부어 만든 원앙기와 흘러내릴 듯 / 황금 난새 · 봉황새 엮은 지붕
산머리에 솟아 / 영롱한 높은 기둥은 하늘의 누각을 찌르고 / 아득히 가파른
난간은 은하수 누각에 닿을 듯하네 / 夸父가 처마를 걷는다면 두 다리를 걱정
하고 / 離婁가 방에 들면 두 눈이 아찔할 듯 / 장군이 빛나는 공적 널리 알리
려 / 온 하늘 흰히 트인 곳에 이 절을 열었구나 銅鑄鸞鷲瓦欲流 黃金鸞鳳屋
山頭 玲瓏高棟凌霄閣 迢遞危欄絕漢樓 夸父步簷愁兩脚 離婁入室眩雙眸
將軍弘植煌煌業 洞徹諸天闢六幽”- 조경, 『동사록』(1643), 『題日光寺』

日光寺를 본 소감을 읊었다. 매끈한 기와와 황금빛 지붕은 해 그림자를 따라갈 정도로 빠른 걸음을 가졌다는 夸父神이라도 걷기 힘들고, 백 보 밖에서도 털끝을 분별했다는 離婁조차 아찔함을 느낄 것이라고 찬탄하고 있다. 일광산의 건축물에 대한 감탄은 家康의 願堂인 權現堂을 묘사한 신유의 『日光山詩十首 · 權現廟』에서도 보인다. 權現堂은 장식 · 종교 · 건축에 일가견이 있는 3명의 책임자가 56만 8천냥을 들여 1년 4개월 만에 완성한 東照宮의 중심건물이다.³⁷⁾ 신유는 먼저 “용과 봉황이 꿈틀대며 하늘로 올라가는(龍鳳蟠拏入碧空)” 그 화려함에 눈을 빼앗긴다. 나아가 權現堂을 부처가 머무는 法王宮에 비긴 후 “개창과 함께 널리 중생구제의 공을 드려왔네(開創兼垂普濟功)”라고 감회를 읊조린다. 전란의 고통에서 백성

37) 宮元健次는 日光東照宮이 장식책임자 狩野探幽, 종교책임자 南光坊天海, 건축책임자 小堀遠州 등 3인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한다. 『日光東照宮 隠された眞實』, 祥傳社, 2002, p.5.

을 구제하여 이른바 ‘德川の 평화’를 실현한³⁸⁾ 家康의 공덕을 높이 칭송하고 있다.

이밖에 瀧尾瀑布에서는 “높은 봉우리에서 길게 떨어지는(飛流幾尺瀉雲巒)”(조경, 『동사록』, 『日光山題詠・瀧尾瀑布』) 그 형세에 놀라고, 三級瀑布에서는 요란한 물소리에 “옷 걷고 겹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 싶은(攝衣翻欲上層瀾)”(신유, 『해사록』, 『日光山詩十首・三級瀑』) 충동을 느낀다. 또 일찍이 弘法대사가 수행할 때 女峰山の 여신 田心姫命이 강림했던 곳이라는 세 그루 삼나무를 보고는 “밤 되면 가지 끝에서 피리를 얻어 / 난새 봉황새 타고 높은 곳을 날고 싶은(入夜笙簫求絕頂 願從高處駕鸞鳳)”(김세렴, 『사상록』, 『靈杉』) 바람도 가져 본다.³⁹⁾

이처럼 일광산 유람에서 보이는 통신사의 감상은 빼어난 경치와 화려한 건축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부정적인 시선도 없지 않다. 곧 동조궁 바닥에 깔린 거북 무늬돌이 7,8천리 떨어진 筑前에서 가져온 것을 두고 “백성의 힘을 고갈시킨”것으로 보거나, 일광산을 조선의 가야산에 비겨 “특별히 泉石이 좋은 것이 없으니 그 밖의 것은 알만 하다.”고⁴⁰⁾평가한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는 예정에 없던 일광산행에 대한 반발과 임란에 대한 적개심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38) 大石 學, 『轉換期の將軍-家康と吉宗』, 『家康・吉宗・家達-轉換期の德川家』, 德川記念財團, 2008, p.6.

39) 이밖에 中禪寺의 호수를 읊은 『嶺上湖』(조경, 신유), 二荒山을 읊은 『二荒山』(조경)・『二荒山神社』(신유), 慈覺大師가 창건한 慈覺寺를 읊은 『慈覺寺重建』(조경), 家康이 댔던 말을 읊은 『神馬』(신유) 등도 있다.

40) 김세렴, 『해사록』(1636), 12/22. 庭中及正路所布之石 長廣數尺 皆作龜文 日本無石 俱自筑前至者云 其竭盡民力至此<…>大概此山 彷彿我國伽倻山形而別無泉石勝國內第一名山如此 其他可知.

3. 致祭를 위한 노정

유람이 목적이던 1636년 통신사와 달리, 1643·1655년 통신사의 일광산 행은 致祭가 주된 목적이었다. 따라서 사행록에도 致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가) 세 사신이 射廳에 모여 일광산에 獻香하는 의식을 연습한 뒤에 일행 중의 관원과 사공들을 한곳에 모아, 금지 조항을 설명하였다.

-미상, 『계미동사일기』(1643), 3/26

(나) 어제 御筆이 도착하매 / 빛나게 儀式을 갖추고서 / 꿇어앉아 어필을 받들어보니 / ‘靈山法界淨’이란 글씨네 / 아름다운 글씨가 扶桑에 빛나리니 / 일본사람 또한 마땅히 공경할 것이네 昨者御書來 煌煌羽衛靚 跪奉瞻寶墨 靈山法界淨 銀鉤耀扶桑 殊俗亦應敬 -남용익, 『부상록』(1655), 4/21, 『萊館書懷得長篇四十韻呈兩使兼示讀祝李文哉』

모두 渡日을 앞두고 부산에 머물 때의 일을 다룬 것이다. (가)는 사전에 일광산에서의 獻香을 위해 예행연습을 한 것을, (나)는 기다리던 임금의 친필을 받고 그 소감을 읊은 것이다. 특히 御筆은 일본측이 강청하여 <講定節目>에도 이미 포함된 것으로 1643년에는 인조가 “日光精界彰孝道場”이란 글씨를, 1655년에는 효종이 “靈山法界崇孝淨院”이란 글씨를 내렸다.⁴¹⁾ 한결같이 일광산을 靈山으로 찬탄하고 그 靈山에 조부 家康을 모신

41) 『增正交隣志』, 卷5, 『志』, <日光山致祭儀>. 壬申年壬午<…>自上書賜日光精界彰孝道場八大字<…>孝宗六年乙未信使之行 因其請 自上書賜靈山法界崇孝淨院八大字. 조선에서 동조궁에 보낸 선물은 많았지만, 동조궁 보물창고 화재 때(1812) 대부분 소실되었다. 필자는 2008년 7월 29일 종무사무소 鈴木常元 총무부장의 안내로 日光山 輪王寺 寶物殿에서 효종의 친필, 敵·簫, 화문석 등을 관람했다. 어필은 얼굴을 맞댄 쌍용이 금박으로 아로새겨진 붉은 칠을 한 나무상자에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다.

손자 家光의 효성을 칭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에서의 致祭 준비는 江戸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643년 통신사의 경우 7월 8일 江戸에 도착, 14일에 일광산행 날짜가 20일로 잡혔고, 집정 伊豆守가 일광산에서 사용될 제문을 정밀하게 준비할 것을 요청하자 사신은 아무 결점이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다. 15일에는 權現堂에 四拜를 요구하는 對馬島主와 논란 끝에 再拜로 결정되고, 133세의 大僧正 南光方이 御筆을 모시고 가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21일에는 역관 鄭忠獻이 熟手를 데리고 먼저 일광산으로 향했다. 1655년 통신사는 10월 2일 江戸에 도착, 일광산행 날짜가 14일로 잡혔고, 13일에 역관 吳寅亮이 먼저 熟手와 理馬를 데리고 일광산으로 향했다. 두 사행의 공통점은 전체 사행이 일광산으로 향하기 전 음식을 만드는 熟手が 먼저 파견되었다는 점이다.

“熟手が 만든 油密果는 몹시 푸짐하고 깨끗한데, 다만 江戸에서 유밀과를 만들 때 보지 못했기에 정결하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밀가루, 기름, 꿀을 熟手에게 모두 주어 다시 만들도록 했지만 熟手는 사신의 명령이 없다 하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미상, 『계미동사일기』(1643), 7/25.

對馬島主가 豊後守를 대신해 三使에게 하소연한 내용이다. 일광산 제사에 쓰는 음식은 반드시 일광산에서 새로 불에 익혀 쓰는 것이 일본의 관례이기에 熟手에게 油密果를 다시 만들게 했지만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신은 급히 다시 만들 것을 지시하고 豊後守에게도 조선의 제물을 반드시 쓰도록 조치를 내린다. 하지만 豊後守는 이미 일본의 기술자들을 시켜 조선의 제조법에 따라 유밀과와 떡을 만들어 제사상에 올렸고, 조선의 제물은 일광산에서 만든 散子와 實果만 그대로 사용했다. 국가적 자존심

이 걸린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록에는 그에 대한 조선측의 불만이나 일본측과의 갈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사신들이 깨끗한 제물을 올려야 한다는 그들의 명분을 거슬러가면서까지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今市에서 하루를 머문 사행은 이튿날 20여 리를 걸어 일광산에 도착해 致祭를 행했다.

(ㄹ) 島主가 원역들을 두고 사신만 안내해서 들어갔다.<...> 두 명의 승려가 사당의 문을 열자 악공들이 음악을 연주하는데, 생황과 통소, 종과 북소리가 자못 절조가 있었다. 사신이 평상 위에서 향을 피우고 축문을 읽고서 전후 再拜의 예를 행하니 島主와 執政들은 평상 밑에서 서서 숨을 죽이고 엄숙한 모습으로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다. 禮가 끝나자 사당 뒤에서 수놓은 옷을 입은 두 어린이가 鳳頭金節을 가지고 앞에서 인도하고 나갔다. 그러자 主僧이 金冠과 금으로 수놓은 옷차림으로 동쪽 뜰로 내려가더니 사신들을 향해서 읊을 하므로 사신도 여기에 읊으로 답했다. -미상, 『계미동사일기』(1643), 7/27.

(ㄹ) 홍역관으로 하여금 河內守에게 말을 전하여 축문과 폐백을 불태우려 하니 대답하기를, “이것은 실로 대대로 전할 보물이므로 지난 번 행차에도 또한 태우지 않았습니다. 禮로서는 비록 태우는 것이 마땅하나 머물러 두기를 청합니다.”하므로, 그대로 따라 나와서 歇廳으로 돌아왔다. -남용익, 『부상록』(1655), 10/18.

(ㄹ)는 1643년 家康의 원당인 權現廟에서의 致祭를 묘사한 것이다. 對馬 島主의 안내로 삼사의 權現廟 입장, 사당의 開扉, 樂工의 음악연주, 再拜, 삼사의 焚香과 讀祝⁴²⁾, 再拜, 鳳頭金節을 지닌 어린이의 안내로 三使가

42) 자세한 기록은 『增正交隣志』, 권5, 「志」, <日光山致祭儀>를 참조. 일본측 자료로는 1636년 家康 21주기 祭儀를 기록한 「日光山御神事記」(『續 神道大系 神社編 東

퇴장, 主僧과 三使의 揖禮 등 제례의 절차와 함께 祭場의 분위기가 잘 드러나고 있다. (4)는 1655년 家光의 원당인 大猷院에서의 치제 과정으로, 前례를 거론하며 축문과 폐백을 태우지 않고 보존하려는 일본측의 견해를 三使가 받아들이는 장면이다. 그들이 전례로 거론한 1643년 치제는 ‘辭神’에서 ‘焚祝’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치제 하루 전날 “축문이 나라의 경사요 만대의 보물인 까닭에 자손에게 전하려 한다.”는 關白의 명령을 받은 집정 阿部豊後守의 간청을⁴³⁾ 三使가 융통성을 보여 그대로 따른 것을 말한다. 일광산 치제는 부분적이지만 조선의 유교식 제사를 일본에서 재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후 關白은 치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三使에게 1643년에는 丁銀 각 1백 매, 무명 300 묶음, 1655년에는 丁銀 각 5백 매, 무명 900 묶음을 내린다. 일본측이 통신사의 일광산 치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4. 양국 문화교류의 노정

통신사는 표면적으로는 외교사절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조선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문화사절이었다. 따라서 통신사를 통한 양국의 문화교류는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筆談・唱和・書簡 등으로 대표되는 문학은 문화교류의 중심이었다. 채 10일도 안되지만 遊覽과 致祭를 명분으로 내세운 일광산행에서도 詩文을 통한 양국 문사의 교류는

照宮』, 神道大系編纂會, 2004, pp.1-57)가 있다. 「奉幣使以下著座之圖」・「行鉢次第」・「祭禮舞樂之次第」・「祭禮行列之次第」・「御經供養左右舞樂之次第」 등이 수록되어 있어 통신사의 日光山 致祭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43) 미상, 『계미동사일기(1643)』, 7/26. 豊後守曰 此則大君既有分付 御祝乃一國之慶 萬世之寶 欲以傳之子孫云.

어김없이 이어졌다.

“義成이 伊豆守의 말로써 와서 청하기를 <…> ‘시를 남겨 길이 절의 보배로 남겨 주신다면 어찌 매우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갈 길이 바빠 머무를 수 없다고 사양하고 근체시 8수를 지어서 보냈다. 光璘, 玄召 두 중이 또 각기 절구 2수와 율시 2수를 지어 화답을 바라기에 드디어 차운하여 보냈다.” - 김세렴, 『해사록』(1636), 4/23

1636년 사행이 일광산 유람 후 눈보라를 핑계로 급히 산을 내려갔지만, 일본측의 요청에 의해 시문의 ‘贈答’과 ‘唱和’가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1636년 통신사의 일광산행을 보여주는 東照宮 소장 『日光山緣起』에 의하면 당시 伊豆守 松平信綱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통신사의 贈詩는 김세렴이 지어서 보낸 8수 외에도 正使 임광의 2수, 從事官 황호의 6수 등 총 16수에 이른다. 그 가운데 김세렴의 8수 중 4수는 『日光寺』, 1수는 『靈杉』이란 제목으로 그의 시문집 『槎上錄』에 실려 있다.⁴⁴⁾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贈詩도 있다. 곧 1643년 통신사 정사 尹順之가 일광산 주지였던 南光方 大僧正에게 부친 『贈大僧正南長老』와 종사관 신유가 致祭과정을 총괄한 그의 제자 毗沙門堂에게 부친 『贈毗沙門堂』이다.⁴⁵⁾ 윤순지는 南光方이 133세임에도 불구하고 모습이 젊은이와 같은 것을 보고 “자신은 몸에 티끌이 누적되어

44) 大瀧晴子, 『日光と朝鮮通信使』, 『朝鮮史叢』 제1호, 조선사총편집위원회, 1979, pp.144-151. 日光東照宮 소장 『日光山緣起』 中卷에 실린 내용을 보면 임광의 시는 제목이 없고, 황호의 시는 『日光山』·『日光寺』·『山菅橋』·『東照殿』·『大僧正』·『瀑布』 등의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45) 尹順之, 『萍溟齋詩集』 권3, 詩, 『贈大僧正南長老』; 신유, 『해사록』, 『贈毗沙門堂』. 東來始入大羅天 聞有長生不死仙 歲序已周三甲子 容顏猶似舊丁年 方瞳入夜縫霜衲 健脚抛筇陟翠巔 堪恨此身塵累重 却從沙界負參禪.

있음에도 / 도리어 참선을 저버리고 속세의 삶을 따르는 것이 한이 된다(堪恨此身塵累重 却從沙界負參禪)”며 부끄러운 심회를 드러낸다. 또 신유는 致祭를 총괄하는 毗沙門堂의 아름다운 모습이 피리소리와 어우러지자 “문득 피리소리 아름다운 골짜기에서 올려나니 / 구령의 신선이 돌아왔는지 의심되네(忽有笙簫吹玉洞 却疑緱嶺羽仙歸)”라 읊어 그를 周나라 靈王의 태자 王子喬에 비겨 신선이 강림하였다고 칭탄한다. 王子喬는 피리를 좋아하여 신선이 되었다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잠시 緱嶺山에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이다. 아버가 조정관리였던 毗沙門堂을 왜황의 아들로 잘못 알고 있었던 신유는 왕자라는 신분이 같다는 이유로 그들을 동일시해 버린 것이다.

唱和는 상대와 시문을 주고받는다든 점에서 일방적인 贈詩와는 달리 ‘문학교류’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 일광산행록에 등장하는 창화의 형태는 첫째, 일광산행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일본문사와의 창화 둘째, 동행하고 있는 일본 문사와의 창화로 크게 나누어진다. 전자의 예로는 1655년 통신사 종사관 남용익이 일광산에 머물 때 民部卿 林道春과의 편지를 통한 창화가 대표적이다.

“바다 깊은 곳에서 徐市의 배 찾기 어려우니 / 가을도 깊는데 뉘 葛洪을 기다리리 / 겨울 매화 羅浮山 그늘 아래 꿈틀거리니 / 흥취는 孤山 눈 내린 하늘에 남았네 海洞難尋徐市船 秋深誰待葛洪川 寒梅欲動羅浮影 興在孤山雪後天” - 남용익, 『부상록』(1655), 10/14, 『次林道春寄韻』

林道春이 편지와 함께 사행이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과 동쪽 해돋는 곳에 있다는 暘谷과 점점 가까워지니 / 바다 모퉁이 해가 뜨는 것을 우러러 보라(花島三壺暘谷近 仰看日出海隅天)”며 시를 보내자 남용익이 이에

차운한 것이다. 林道春은 남용익이 『문견별록』·『인물』조 <稱爲文士者 八人>에서 아들 林恕·林靖, 손자 林春信 등과 함께 맨 앞에 거론한 이다. 그는 家康·秀忠의 二元정치시대에 以心崇傳과 함께 외교문서를 총괄하던 인물로⁴⁶⁾, 이 시는 林道春의 호 ‘羅山’·‘羅浮子’에 착안한 것이다. 羅浮山은 ‘羅浮之夢’의 공간적 배경이 된 곳이자, 도교에 심취한 東晉사람 葛洪이 仙藥을 만들었다는 곳이기도 하며, 孤山은 宋나라 사람 林逋가 매화를 많이 심었다는 곳이다.⁴⁷⁾ 林道春의 ‘호’를 소재로 각종 고사를 끌어들이 그가 머문 곳이 바로 신선이 사는 곳이라며 예의를 갖추어 맞장구를 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통신사가 일광산행에서 행한 대부분의 창화 대상자는 以酤庵輪番制의 시행과 함께 對馬島에서부터 일광산행까지 동행한 京都의 東福寺와 建仁寺에 籍을 둔 2명의 接伴僧이었다. 이들은 室町시대 京都 五山을 중심으로 발흥한 五山文學의 맥을 이어 한문학에 정통한 데다, 오랜 기간 동행하면서 통신사와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 그 결과 김세림-玉峰光璘(1636), 신유-周南圓旦(1643), 남용익-九岩中達·茂源紹柏(1655) 등의 창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김세림은 玉峰光璘에게 이별을 아쉬워하는 내용을 담은 『次璘西堂』 2제 3수를, 신유는 周南圓旦에게 山菅橋와 三級瀑布의 경치를 찬탄하는 『日光山次周南長老韻』을 남기고 있다. 다만 모두 창화대상자인 接伴僧의 原韻을 기록하지 않아 전모를 파악하기 힘든 것이 한계다.

다행히 남용익은 九岩中達에게 『次達僧韻』 2수를, 茂源紹柏에게 『次

46) 永積洋子, 『近世初期の外交』, 創文社, 1990, pp.27-29.

47) 『中國文學大辭典』, 百川書局, 1994, p.1994와 p.6159. 이밖에 일광산행에서 행해진 편지를 통한 南龍翼과 林道春의 창화는 『次林道春寄韻』-『附原韻』(10/14), 『附林道春追次』(10/18) 등이 있다.

柏僧韻』 3수를 남기면서 次韻 뒤에 상대의 原韻을 부기하고 있어 唱和의 상황을 살필 수 있게 한다.

“동방군자국에 풍속이 맑아 / 문무겸전하여 태평을 이루었네 / 일광산 위의 달을 보소서 / 주야 고금을 가리지 않고 밝나니 東方君子國風清 文武兼全致泰平 請看日光山上月 不分晝夜古今明” - 남용익, 『부상록』(1655), 10/18, 『附原韻』

9월 27일 江戸로 향하는 小田原에서 九岩中達이 남용익에게 부친 시다. 그는 남용익과 함께 이른바 ‘시를 통한 富士山-금강산 우열논쟁’을 벌인 인물이다. 中達은 동방군자국인 일본에서 문무를 다 갖춘 德川家康으로 인해 태평은 물론 지금까지 그 덕이 빛나고 있다고 자랑한다. 이에 남용익은 신선의 풍악이 세상을 맑게 한 점은 인정하되 이내 “동조궁 앞에 산이 첩첩 쌓였는데 / 햇빛이 어느 곳에 가장 먼저 밝은고(東照殿前山萬疊 日光何處最先明)”라 하여 완전히 긍정하지는 않는 태도를 취한다. “中達・紹柏 두 중이 연달아 詩를 지어 보여 자못 자랑하는 기색이 있으므로 차운을 거듭하여 꺾어 주었다.”⁴⁸⁾는 기록에서 보듯 일광산에서도 시문을 통한 경쟁의식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통신사의 日光山行에는 문사간 문학교류 외에 음식문화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원래 통신사행에는 刀尺 7명과 格軍을 겸하는 屠牛匠 1명 등 총 8명의 요리사가 참여한다.⁴⁹⁾ 통신사에 대한 일본의 음식대접은 일본측이 조리한 음식을 대접하는 ‘熟供’과 식재료만 공급하여 조선의 요리사가 음식을 만드는 ‘下程’으로 나뉘어진다. 그 과정에서 양국 요리사의 교류가

48) 남용익, 『부상록』(1655), 9/27. 達栢兩僧 連呈詩 頗有誇大之意 疊次折之.

49) 『增訂交隣志』 卷5, 「志」, <通信使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⁵⁰⁾, 일광산행도 예외가 아님을 앞서 1643년 일광산행에서 야기된 ‘油密果’ 사건이 잘 보여준다. 곧 제사상에는 우리측 熟手가 만든 유밀과 대신 일본요리사가 우리의 제조법을 익혀 만든 유밀과와 떡이 오른 것이다.

이밖에 음악과 의학의 교류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일광산행록에서 통신사의 음악공연은 물론, 치제과정에서의 연주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狩野探幽가 그린 『東照社緣起繪卷』에는 後水尾天皇이 쓴 ‘東照大權現’ 편액이 걸린 石鳥居를 통과하는 1636년 통신사행렬이 그려져 있고, 그 속에 피리와 북을 연주하는 악대가 등장한다.⁵¹⁾ 게다가 1655년 통신사의 경우 일광산에 비파, 거문고, 敵, 塙 등 10여 종류의 악기를 선물하고 致祭 때 이들 악기가 진열되었었다. 따라서 연주 방법의 지도 또는 시범연주 등의 형식으로 교류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의학의 경우 1636년 통신사의 일광산행에는 일본측에서 國醫 玄塚이 통신사를 수행했다. 또 남용익의 『부상록』에는 일본 醫官 桒門三竹도 등장한다. 남용익은 그가 玄塚의 아들로 “律醫官으로 文士와 차이가 없어 부자가 모두 당시에 이름이 났다.”⁵²⁾고 기록하고 있다. 前例를 중시하는 외교사행에서 國醫의 동행은 지속되었을 것이고, 특히 1655년에는 桒門三竹이 수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통신사를 수행하던 조

50) 한태문, 「통신사 왕래를 통한 한일문화교류」, 『한국문화논총』41집, 한국문화학회, 2005, p.223.

51) 辛基秀·仲尾宏, 『大系 朝鮮通信使』卷2, 明石書店, 1996, pp.24-29.

52) 남용익, 『문견별록』, 「인물」, <醫官二人>. 桒門三竹 卽其國名醫玄塚之子也 世傳其業 爲人癡率顛狂而稍有氣習 且其國之律醫官無異文士 以此父子皆顯名於時. 玄塚은 德川秀忠의 侍醫 野間玄塚이고, 그 아들도 桒門三竹이 아니라 『野間三竹詩文稿』를 남길 정도로 문학에 조예가 깊었던 野間三竹이다. 『日本古典文學大辭典』卷4, 岩波書店, 1984, pp.682-682.

선의원들과의 교류가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록에 반영된 일광산행을 살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광산행록의 형성배경이다. 1636년·1643년·1655년 3차례 통신사의 일광산행은 일본의 强請에 의한 ‘산수유람’(1636년)과 양국 선린의 상징적인 행사로서 ‘致祭’(1643·1655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일광산행록은 强請으로 인한 日光山行의 불가피성을 토로하고 자신의 文名 과시 및 귀중한 견문을 전달하려는 보고의식에서 산출되었다.

둘째, 일광산행록에 반영된 일광산행의 의미이다. 먼저 일광산은 통신사 일광산행의 최종목적지로 전후의 對馬島-江戶의 통신사 왕복 노정을 對馬島-日光까지 확장시켰다. 그 결과 동북지역에 대한 산수유람의 노정이 되기도 했는데, 江戶-日光山 왕복노정에서의 유람에서는 각 노정지역의 경관과 접대에 대한 감회를, 日光山 유람에서는 山菅橋, 瀧尾폭포 등의 자연경관과 함께 東照宮·權現堂의 화려함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었다. 또 일광산행은 궁극적인 목적인 權現堂과 大猷院 등에 대한 치제의 노정으로 조선의 유교식 제사를 부분적이지만 일본에서 재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일광산행은 문화교류의 노정으로 일본의 文士·接伴僧과 贈詩와 唱和를 통한 문학 교류, 致祭에 사용된 油密果를 통한 음식 교류 외에 일본 國醫의 대동과 致祭행렬에서의 연주 등에서 의학·음악교류 등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 통신사의 일광산행은 단순한 외교의례의 차원을 넘어

통신사를 통한 17세기 朝日 양국간의 다양한 접촉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海行摠載』 소재 1636년·1643년·1655년 사행록.

『増正交隣志』

『神道大系・神社編 日光二荒山』, (財)神道大系編纂會, 1985, pp.194-195.

『日光大觀』, 日光山輪王寺, 2007, p.5.

『日本古典文學大辭典』卷4, 岩波書店, 1984, pp.682-682.

2. 논문 및 단행본

宮元健次, 『日光東照宮 隠された眞實』, 祥傳社, 2002, p.36.

大瀧晴子, 『日光と朝鮮通信使』, 『朝鮮史叢』1호, 靑丘文庫, 1979.

大石 學, 『轉換期の將軍-家康と吉宗』, 『家康・吉宗・家達-轉換期の徳川家』, 徳川記念財團, 2008, p.6.

三宅英利 著・손승철 역,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이론과실천, 1991, p.130.

小杉達, 『東海道と脇街道』, 静岡新聞社, 1997, p.198.

辛基秀・仲尾宏, 『大系 朝鮮通信使』卷4, 明石書店, 1996, pp.24-29.

—————, 『圖說 朝鮮通信使の旅』, 明石書店, 2000, p.92.

심경호, 『일본 일광산(동조궁) 동종과 조선의 문장』, 『어문논집』65, 민족어문학회, 2012, pp.316-347.

日本文部省, 『新訂 尋常小學唱歌』第五學年用, 大日本圖書株式會社, 1932, pp.26-27.

佐藤權司, 『朝鮮通信使・琉球使節の日光參り』, 隨想舎, 2007, p.25.

仲尾宏, 『朝鮮通信使と徳川幕府』, 明石書店, 1997, pp.110-115.

최종일, 『朝鮮通信使의 日光山 致祭 研究』,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1998.

한태문, 『통신사 왕래를 통한 한일문화교류』, 『한국문화논총』41집, 한국문화학회, 2005, p.223.

Abstract

Ilkwangsan-Tour Reflected on Tongshinsa's Sahangrok in the Late Chosun Dynasty

Han, Tai-Moon

This study illuminates the features of Ilkwangsan-Tour reflected in Sahangrok of Tongshinsa in the late Chosun Dynasty by exploring the background of formation of Ilkwangsanhangrok and the significance expressed in Ilkwangsanhangrok.

First, the study explores background of how Ilkwangsanhangrok was formulated. The Tongshinsa dispatched to Japan three times in 1636, 1643 and 1655 by the request of Japan travelled around Ilkwangsan and conducted the ritual ceremony as the symbol of good-neighbor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lkwangsanhangrok was produced in this process as the means to highlight the necessity of Ilkwangsan-Tour to report precious knowledge from the mission and also to display one's literary talent.

Next, the study investigates the significance of Ilkwangsan-Tour. Ilkwangsan-Tour is the journey to the final destination of Ilkwangsan as well as the journey of landscape sightseeing. In the journey passing through Edo to Ilkwangsan, the impression about the landscape of each region is expressed. In the course of sightseeing of Ilkwangsan, impressions about natural scenery (such as Sankwankyo and Rongmi Fall) and splendor of architecture (such as Dongjogung and Kwonhyundang) are expressed. Ilkwangsan-Tour was also the journey to the ritual to Kwonhyundang and Daeyuwon. As can be seen from the descriptions, it was a journey of cultural exchange including literature exchange through poetry writing with Japanese writers or diplomatic priests, food exchange through confectionery used in the ritual ceremony, medical exchange through accompanied Japanese royal doctors, and musical exchange through musician's performances.

Key Word : Tongshinsa, Ilkwangsan-Tour, Ilkwangsanhangrok, ritual ceremony, cultural exchange.

한태문

소속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인문관 교수연구동 411호

전화번호 : 051-510-2009 / 017-854-2009

전자우편 : hantm@pusan.ac.kr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3년 12월 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
--